



엄승열 선생

엄승열 선생은 1908년 3월 11일에 원동병강
연해주 한광도시인 북천시, (한인 말로 수형) 한광
로동자의 가정에서 탄생하였다. 북천 엄이완은 그 당
시 석한 채클로동자로 일하시었으며, 최후 북유한지
주의 가정에서 고용로동자로 일하시었다. 1920-21년

2.

원동에서의 비밀회산 운동의 시기에는, 유명한 비밀회산 대장
로서 레비하 장군의 명솔하여 원동에 노베르쿠원 수립
을 위한 비밀회산 운동에 참가 하시었다. 원동에 노베르쿠원
확립된 이후에는 아버지는 농사씨 종사하였으므로, 1924-30
년대에 농촌정리 단합회시기에는 아버지는 레일선환
협동조합에 입회하여 일하시다가 한인감레이쿠 시기인
1938년 봄에 세상을 떠나시었다. 어머니는 1956년에 돌아
가시었다. 엄선생은 1917년에 초학교에 입학하여 1921년
에 마감하시고, 1922년에는 로동학생을 활동하였다 그 후
엄선생은 (1925년 까지) 어업 협동조합 로동자로 1925
년까지 노보트가 어장에서 일하였다. 엄선생은 약
간의 일천을 벌여가지고 유학을 떠나 1926년에는 현재
우투리스크 (당시 노왕령) 시에 가서 한인사범 전문학교
에 입학하여 1929년에 마감하였다. 사전을 나온후 엄선
생은 노크로부 구역 노공에서 일년동안 교무 주임 겸 주학
교원으로 일하시어 1930년 8월에는 원동변강 공산청년
회 대표 겸 모스크바 경제 대학에 공부 하러 갔으나
대학에 입학 할 수 없 었다. 엄선생은 일년간 모스크바
비행기 제기 제조 공장에서 일년 동안 실반 공으로 일
하시어 1931년에 또다시 입학 시험을 보 고 대학
계획 경제 학 부에 합격 되 어 1935년에 활동 했다.

1943년 12월 경제대학 계획경제학부를 이관한다음 업선생은
 국원 계획위원회 간부로서의 파견에 의하여 원종변경 계획
 위원회에 가게 되었으나 업선생은 거기에서 다시 파견
 받아 미하이크로부 구역 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1936-
 1937년간 일하게 되었으며, 원종에서의 한인 강제
 어구에 의하여 업선생은 우르베헤한에 보내졌었다.
 우르베헤한에 도착한 업선생은 국가계획위원회의 파견
 에 의하여 군시, 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겸쳐 페르시아
 주 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쳐 하유켄느시 계획위원회
 주택 및 사회보장 시설 계획위원회 부장으로 1944년 12
 월까지 일하시며, 1944년 1945 할년도에는 하유켄느
 주 공설청구역 기로브 국영농장 복락에서 고공학과
 교장으로 1945년에 복환에 파견 될때까지 일하시었다.

1945년 8월에 징을 떠난 업선생은 원종비인 강 불
 라지 워브도크를 통하여 소련군 25군단과 함께
 북한 평양에 입성하게 되었으며 1947년 4월까
 지 25군단 인민사령부 총역관으로 일하시었다. 1947
 년 4월부터 업선생은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으로, 정부의 계획에 대한 개략보고자로 제시했다. 업
 선생의 가장 활약이 컸으며, 위신있게 일하신 시기는
 바로 동족상잔이 시작될 1947년 4월이었다. 그는 국가계

획 위원회의 중책을 계속 보시면서 국가 군사위원회
 에 요구되는 군수품과 후방물자를 총적으로 계획하면서
 전쟁 3년 동안 아주 복잡하게 지내었다. 그의 계획을
 통하여 몇몇 대의 자용자들이 조선 전역에서 재정이 가
 려서 현재까지도 어느 산골짜기나 구렁에서 썩고 있든지
 일어나는 후방물자, 식료품들이 야간을 리용하여 전성으로 달
 리다가 불예측을 맞아 그자리에서 소각되고 말았는지 여
 을 업선병은 아나 ^아고 계획을 갖는다. 아나, 조선이란 공
 급한 것이 아니라 계획위원회는 추방인민들로 벌이고, 업히고
 하여 전쟁을 아끼내려고 애놓기는 사실이다. 이때에는
 소련과도 려이고 없어 모두가 군용당의 지시대로 철저하
 게 일 해나갔다. 1950년 10월 초순에 유엔군의 38선
 에 접근하여 북한으로 전공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
 자 유엔군의 공격한 하역로 기전력질한 평양 간부 가족들
 은 정신없이 북으로, 북으로 중국 국경과 소련 가까이로 후
 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소련 출신 간부 가족들은 본
 세기 간부들의 가족들보다 배가의 겁을 먹고 엄하였다. 그
 것은 식량으로 부어 공산주의 사상을 끌고 온 적대물어 그랬던 지
 으나, 사실은 그러하였다 때문에 소련 출신 가족들은 전부다 안
 포선으로 향하여 소련 가까이, 하얼빈시에 자리잡게 되었다
 또 지방 중국인 지도자들은 전쟁^하고 있는 조선의 간부 가족들이라

아주 따뜻하게 맞이하러 고층여관이나 좋은 집들에 이
들을 배치해 주었다. 또 조선 정부는 특별 대동부를 조직하여
이들의 행편을 돕아 주게 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 해야
할 것은, 그 당시 여선생의 부인 박류바씨는 이 가족들의 일
반적 어머니 모양으로, 그녀의 역할이 대단하였다. 누구
의 집에서 어린아이나, 늙은 어른이 앓는다 하면 류바 어머
님은 밤을 새워가면서 돌보아 주고 감사하였다. 이 시기에 할
배 시에서 한생이였거나, 거기에서 전쟁 3년간 살았
으며 공부한 노련 출신 간부들의 제 2세대는 현재 44
세 60세 이상 되어 벌써 연노년 생활에서 자신들이 할배
할머니, 한아버지가 되어 귀찮은 자손들을 말리고 있다.
그러나 이 박류바 어머니에 대한 인상은 누구런지
어디까지도 외면하고 있다.

박류바씨는 1910년에 원종현강 연해국 부근에서
한생하여, 그 한광도시에서 잔배비 줄어, 노학은 초중등
졸업하시고, 1930년에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다음
계속 의공봉사계통에서 간호원, 중어로 일하시였다.
어선생은 벌써 유년 시대부터 자기 고향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류바씨를 잘 알고 있었다. 두사람은
앞으로 꼭 배필이 되려는 약속을 맺어 놓고 어선생은
모스크바로 유학 떠났다. 그러나 어선생은 약속을 어

가지 안고 1934년에 결혼하였다 결혼 후 아픈 나날
 두 걸은 이 둘은 많은 고생도 많은 즐거움도 같이 맛보려 일
 생을 하류와 같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지내시다가 류바
 어머니는 1945년에 세상을 떠나시었다.
 여성생의 사업은 전쟁이 끝난이후에 더욱 활발하였다. 전후
 복구사업은 물자가 궁핍한 나라에서 험가지 만가지를 중국
 이나 소련에서 수입하여야 하였으며 또 새 공장 제조
 시설을 구입하여야 하였다. 많은 공장들의 기계 시설들은
 형제국들의 원조에 의하여 무상으로 입수하였던바 체코에
 서 자동차 공장, 소련에서 트랙터 공장, 중국에서 직조 공장
 등 종합적으로 소련에서 50여개 이상의 공장 10억이
 상의 무요원조의 대가를 수입하였다.
 전쟁 3년사이야 억지 못하고 입지 못하여 금주립에서 너
 험한 일은 미래를 위하여, 후대들의 세상에 위하여 그대도
 애쓰면서 복구사업에 힘써 냅드는데 모르고 일하는 어찌하여
 김일성이는 간부 숙청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처음 남
 당의 거두들이 혁명당과 이승만을 처형한 다음 북한
 동당내에서 가장 위신 있는, 그것은 자기보다 몇 배 위신
 있는, 당원들을 당밖이라고 칭해서면서 준경한 리가이를
 1953년 7월 2일에 안살하여 가족도 못보게 되고 비밀리
 에 매장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소련화를 후려서 소련화를 비판

7

하게 하고, 노위 당 사상 검호라 명명하고 명세 좋은
그 사상 검호 회의 결정으로 철적, 처단, 강직 조종, 유형
사리 화전등을 당간부부는 마땅대로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 품에 걸린 엄봉철 선생은 1954년 초에 국가 계획
위원회에서 몰레나와 평양 외국어 대학 학장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질과는 정반대인 직물에 조종하
였다. 엄 선생은 이 직물에서 오년간 일하시던 1956년
초에 노동성 계획위원회에 자신의 발기를 일하시였다.
노동당 간부부는 이것을 용허하지 않고 옳다. 적당
한 기획을 리 용허하여, 반당 종파분자 소련파들이 현곳
에 용어 과수를 꾸미고 있다. 그 자리에서 철
적하여 놓고, 처음 당이 화전한 때로 다시 그 때 복에
가서 끌어 교원으로 일하라고 하였다. 이때에 엄 선생은
자신은 당의 지시를 실시하는 복 하십시오. 박류바 사모님을
사끼서 소련 대사관 명사알에 소련 귀국 청원문 제출
하고, 소련 계획위원회 위원장이며, 예전 학생시기
에 동창생이었던 바이바꼬프에게 편지를 보이며,
이곳에서 일하라고 소련 공산당은 화전하였으나 일할 복
없이 다시 귀국 하오니 앞으로 동리의 복스럽고 따듯
한 손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썼다. 바이바꼬프는 그 즉시
으로 회답하기를 그러면 오시라고 쓰면서 오시면 일

자리와 사생활 제는 없애없이 해결하여 준다고 전화를
 하였다. 어디에 업선생은 당간부에게 다시 찾아가 정당
 청원으로 제출하면서 당의 화명으로 외국에 대학에 보내 준적
 무에서 해업할 지시를 모성하였다.

그후 업선생은 중앙당 간부회 할바당을 나오면서 아득한
 은은물을 놀라웠다. 소련 공산당에서 화결하여온후 12년
 간 예선고선조들의 조국에서, 자기 조국에서 일하였지만 김일성
 이 야기한 종파 투쟁, 그것을 작기가 시작하여 농군사조, 어떻게
 하려면 자기만 용해하는 불우한, 한결의 마음을 가진 큰증강
 을 만들려고, 자기 생각에 좀만 맘을 갖고 있다고 생각
 되는 간부들을 전부 청산하여 없애버리려고 생각하고, 사상
 검출 운동을 백조에 야기하였으나, 무고한 백성만 몇백만
 희생될뿐, 기다리던 눈결성은 다 헛크러지고, 한때와
 전열이 터져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더구나 소련 간부진영
 측에서 업선생과 제일 친하게 일하신 분들은 리동화, 리희준,
 천치영, 박덕환, 박길남 등 선생들은 소련 종파주의 4 소련
 가족주의라고 비관하여로 갈라 놓을수 없는 친구들이었다. 업선
 생은 이들로 몇달 후에나, 12월 6일 후에 꼭 소련에 돌아오
 리라고 언감미론으로 현제 주별하고 12월 24일 4일
 섭섭하였다. 결과는 업선생이 생각한것과 어긋나지 않았다.
 업선생은 소련에 귀국하자 계획위원회 건설 계획부장

으로 임명되어 일하였을바, 계획위원회에는 언선생
 의 이런 동향인 신 포플란 또 다른 한인 한복어사
 회보장 계획부 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언선생은 소련 귀환
 이후 1년 6개월간 한복어사에서 일하시던 1946년에 연금
 생활이 넘어갔다. 연금 생활을 하시면서 언선생은
 전 소련 지력을 다 돌아다니며 북한에 가서 같이 일
 하던 친구들을 찾아 만나보고 어떻게 하면 조국통일이
 조속한 시일내로 이루어지리까, 북한의 기일성득재
 제도를 허물어고 전염병적 민주제도로 바꿀수 있겠
 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언선생과 언선생의 북한 방문, 일생 문법적인 배
 필로 이루어진 가정, 선명한 북부 시어에서는 아들
 형제, 딸 4 형제가 태어나 모로다 대학원생과
 형제 사화에 전출하고 있다. 6남매 중에서도 특히
 박병을 언선생의 첫 아들이고 된 언 선생은 별처 10
 여년 전 북부 모스크바에 한국학교를 설치하여 총
 고 4백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워 주어 고
 다란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공로는 한국에서 인정
 하여 주어 그해는 1947년 무삼병의 학생들을 평
 놀 하여 갔어고 한국에 관광도 시킬 겸 한국어 교
 용도 식혀고 있다. 현재에는 그 학교는 언선생 자라나

(현재에는) 소련 각 지방에서湧어온 유학생들로 인하여, 수백명의 전라한국어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정신으로 교양받았으며 한국어를 소위한 과거 소련 지역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서 거세게 이 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각종업, 상업 기업들과 각 기관 지어는 각 교회들에도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본래 재래의 흥역원들도 약간 있었지만 이들은 벌써 연노하고, 또 각 기술계층에서 자기 기본 직업에 종사하고 있기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기술에 손을 들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어렵 으니 맞게 조직한 업네라 씨의 학교는 모스크바에서도 한국에서도 대대적으로 인정받으며 움직이고 있다 업네라의 아들 형제중 하나인 업펠릭스는 모스크바에 뿌리박고 급속하게 성장하여 각종 기업들의 지도자로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면서 국제적 상업, 산업, 과학 기술도 입에 전력을 다하여 12명생을 열치고 있다. 특히나 양단되어 있어 우리들에게 배겨지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조국의 심복한 민주 평화통일을 위하여 구국전선 사무총장으로 있는 최 아라나씨 지도하에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인 허활레리, 장활레리 등 여러 동지들과 더불어 만사 조직사업에 사심없는 방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업펠릭스는 자기 복원의 사냥과 의지

를 계몽하면서 해마다 각 곳에서 진행되는 구족정선 대회들에 매년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자기의 철저한 의사를 표시 하였으며, 그 대회의 결경 실적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

어느날 성병은 1969년에 연금생활에 나와 근 10년 동안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시면서 매일같이 조국에 대한 소식이 실린 신문 잡지 등을 읽으시면서, 특히 북항의 출판물들을 많이 구독하시면서 북한에서 글로써 되고 있는 형제들에 대하여 열렬하시면서 조국향 평화통일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1978년 7월 6일에 서거하시었다.

1997년 10월 21일 모스크바에서.